



성교육은  성문화센터에서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삼성동171-1)

홈페이지 | www.dreamcenter.or.kr

블로그 | blog.naver.com/sundream1375

대표전화 | 02-2051-1375

2021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장애청소년성교육& 성교육자원활동가 활동집



 서울특별시

 여성가족부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CONTENTS

02	목차
03	기관소개
04	사업소개 - 장애청소년성교육 및 성교육자원활동가
05	센터장 인사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장 김해영)
06	실무자 및 활동가 소개
08	성교육자원활동가 활동 소감
13	성교육자원활동가 활동 사진
14	독서감상문
16	성교육 참여 청소년의 소감
18	장애청소년성교육 활동 사진
19	실무자 편집후기

2021 장애청소년성교육&성교육자원활동가 활동집

- 발행일 | 2021년 12월
- 발행인 | 김 해 영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에서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청소년에게 ONE-STOP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위기지원 청소년 특화기관입니다.

■ 드림센터 미션

다양한 청소년이 자립, 상담, 교육, 보호, 예방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

■ 드림센터 주요사업소개

- 활동자립팀 : 아르바이트 및 자립 지원, 진로체험
- 교육팀 : 도시형대안학교, 위탁형대안학교, 검정고시 지원
- 상담팀 : 법원위탁청소년 상담, 위기청소년 연계치료, 청소년일탈 예방교육
- 드림일시청소년쉼터 :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인권보호상담, 찾아가는 길거리 상담
-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 성교육, 성문화 프로그램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입니다.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이 성적자기결정능력을 발휘하여, 성문화의 주체로 성장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흥미롭고, 당당하고, 즐거운 성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주요 프로그램

- 성교육 : 어린이성교육, 청소년성교육, 장애청소년성교육, 대안학교성교육, 찾아가는성교육, 가족성교육, 양육자성교육, 가해변화프로그램
- 성문화프로그램 : 사춘기파티, 성년식, 성문화캠페인/거리상담, 성문화축제, 성교육자원활동가, 청소년성문화동아리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장애청소년성교육>

-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장애청소년성교육 지원
- 장애청소년의 다양한 정체성과 성적 즐거움을 누릴 권리 존중
- 주체적인 성 가치관 전달을 통해 장애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능력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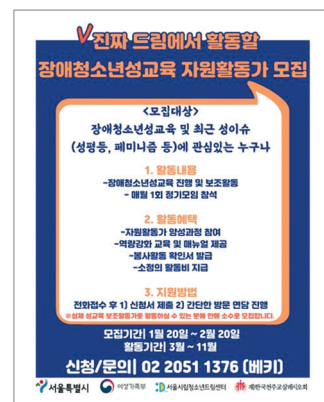
대 상	장애청소년(만13~18세) 6~8명		시 간	50분 X 4차시
교육 내용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자기표현, 경계와 동의	다양한 몸의 변화	존중과 배려의 인간관계	진정한 나다움

■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장애청소년성교육>을 함께한 학교

서초중학교, 수서중학교, 풍납중학교, 경기고등학교, 문현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성동고등학교, 용산고등학교, 창덕여자고등학교 총 11개교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자원활동가>

- 청소년성교육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지자 역할의 성교육 활동가 운영
- 장애청소년성교육 활동을 통해 장애청소년성교육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관심촉구
-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성 있는 맞춤형 성교육 제공



■ 활동가 양성 및 운영 현황

- 2020년 성교육자원활동가 모집 및 선발
- 양성과정 수료 후 위촉
- 2021년 역량강화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 온-오프라인 정기모임 진행
- 장애청소년성교육 진행 및 보조 활동
- 모니터링
- 평가회의

코로나의 위협보다 더 용감하신 활동가님들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자원활동가 활동집을 만든다는 반가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활동하기가 참 쉽지 않으셨는데도 작년부터 교육에 참여하시면서 헌신적으로 준비하신 활동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활동가님들이 멋진 활동가가 되시도록 동반해 주신 정소라 선생님을 비롯한 소장님과 성문화센터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성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장애청소년들에게도 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현실에서 장애청소년들에게 맞는 성교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그런 현실을 잘 알고 계시는 활동가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성적으로 교육에 임하시어 참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올바른 성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성교육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성 = SEX = 육체적 성관계 = 욕망 충족이라는 왜곡된 인식에 빠져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을 막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올바른 성교육을 특별히 누구보다 더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청소년들을 위해 오늘도 수고해 주시고 내일도 수고해 주실 활동가님들과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김 해 영 센터장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실무자가 입장하였습니다.



지니

평등하고 안전한 성문화를 희망하며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지니입니다.

잉코



청소년과 성교육을 함께 하는 것이 신나고 재미있는 잉코~입니다!



새봄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툭!툭! 튀는 에너지를 뽐내내는 새봄입니다! 어린이·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제일 좋아요!

베키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때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고, 모두가 그만 말하라고 할 때도 멈추지 않는 투머치토키이자 씨네필 베키입니다:D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자원활동가가 입장하였습니다.



바람

봄바람을 좋아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옥수수를 먹으며 영화 보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소리쳐



소리쳐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고, 그중에 성교육도 진행하다보니 나의 성의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름

드림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특수학급 성교육자원활동가로 2년간 활동한 여름입니다.

스마일



어느 순간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어, 기왕이면 거울을 보는 나 자신이 기분 좋아지고, 웃으면서 살고 싶은 스마일입니다.

봄이



새롭 새롭 봄이 좋아 '봄이'가 된 활동가 봄이 입니다.

리바다



청소년과 성이라는, 내게는 조금은 부담스런 대상과 주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활동한 리바다입니다.

플로라



비와 들꽃, 산능선과 노을 등을 좋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편안함을 주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和而不同을 추구하는 Flora입니다.

양파



저는 채소 중에서 양파를 가장 좋아하여 양파를 활용한 음식을 자주 먹고 있습니다. 특히 떡볶이, 불고기, 카레속의 양파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을 좋아하여 포크댄스와 방송댄스, 줌바댄스를 즐겨 추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shall we dance?

동구



'동'구라는 별명을 가진 장애청소년성교육자원활동가입니다.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평등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나



꽃보다 아름다운 직진 본능 열정가득 따지 나야나 "나나"입니다.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자원활동가 활동 소감



활동가 바람(최혜선)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장애청소년성교육 자원 활동가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네요. 처음 시작은 지인의 소개로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궁금한 것을 배우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해는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의 활동가분들의 교육이 매우 체계적이고, 인권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교육내용이 기존의 획일화된 내용과는 달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교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장애청소년들이 성문화센터에 올 수 없는 코로나 상황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에 참여하였는데, 4회기 수업에서 '자기표현, 경계와 동의, 다양한 몸의 변화, 존중과 배려의 인간관계, 진정한 나다움' 등 짧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 담긴 교육으로 청소년들과 즐거운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중도면에서는 성문화센터에 방문해서 하는 교육이 찾아가는 성교육에 비해 높았다고 느꼈습니다.

센터에서 저희 자원활동가들의 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준비해 주신 교육들도 나의 인식을 점검하고, 기존의 내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것들을 다시 체크하고 성평등한 사고를 하도록 바로 잡아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제한적인 대면과 비대면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으나 언제나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활동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동가 나나(김명은)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와 2년여의 시간을 함께하며 정기모임을 통해 학교 현장과 청소년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실제적인 역량강화교육으로 어렵게만 생각되고 긴장 가득하던 특수학급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성교육 활동이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제 자신도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열정적이신 리더 베키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세심한 배려와 역량 강화교육을 위해 강사 섭외 등 여러모로 애써주심에 감사하며 여러 활동가님들과 함께한 시간도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활동가 동구(김동휘)

장애청소년성교육! 처음에는 '잘 가르쳐' 보려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잘 배우는 것' 이더군요. 게다가, 가르친다는 생각부터가 위계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가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만나는 청소년들을 통해서도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장애 청소년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앞서서



활동하시는 실무자 활동가분들께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활동가 여름(이승미)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 상황이 백신접종과 함께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우리들의 일상도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네요. 2년간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힘써주신 드림성문화센터 실무진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역량강화교육은 제 자신을 돌아보기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수업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은 최근에 진행된 학교 성평등교육의 현황을 주제로 한 수업입니다. 교사 입장에서 느끼는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 현실을 알 수 있었고, 학교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평소에 듣고 싶었던 강사님의 교육을 들을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자원활동가로 특수학급에서 성교육을 진행하는 활동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실제 교육 활동이 많지 않았던 점과 이제야 몸이 풀렸구나 싶었는데 마지막이라는 게 정말 아쉽더군요. (또 좋은 기회에 뵙기를 고대할게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청소년들을 만나며 정말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2년간 하게 되어 정말 뜻깊었고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쪽쪽 진행되어서 많은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가 플로라(김명숙)

드림에서 활동하면서 제가 만난 특수학급 참여자들은 반응과 호응도 잘해주고, 모든 활동에 적극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로부터 습득된 성 고정관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어느 날부터인가 성차별적인 표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뎌지기 쉬울 때쯤 찾아오는 역량강화교육은 저의 성인지각수성을 성장시키는 단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함께하는 동료 활동가가 있어서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Flora는 지금도 확장되고 성장하는 중입니다^^

활동가 소리처(소용희)

정기모임과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나 자신의 성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성인지각수성이 확장되어 감을 알아차렸고, 성인지각수성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교육 참여, 현장사례의 문제를 민감하고 예민하게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수학급성교육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지원은 이제 '성'에 대해 진지하게 다가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성'은 우리 생애에서 각각의 온도와 색깔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성행동이 자칫 '문제 행동'으로 인식되어 가족과 사회에서의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것은,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원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장애인의 성이 함부로 평가받거나 왜곡 당하지 않고 장애인이 당연한 성적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장애학생들의 수준과 속도에 맞춰 꾸준히 포괄적인 성교육을 진행하며 더불어 장애인의 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동가 리바다(신명은)

전문적인 공부는 안 했어도 어느 정도는 열린 관점과 이해심을 가졌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보니 편견과 고정관념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하고 질 좋은 교육과 맛있는 간식으로 활동에 지장 없게 해주신 점에 비해 코로나의 영향으로도 그렇고 일정이 맞지 않아 활동량이 적어서 다소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신 기관원 샘들과 함께한 동료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활동가 양파(나현진)

저는 2020년부터 청소년성교육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양파라고 합니다. 평소 장애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들을 만나면서 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성교육이라는 큰 과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 성인들에게 성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 하면서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자원활동가 교육 이수 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 매뉴얼 숙지,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강사님들의 성교육 현장 강의를 듣고 성교육의 방향을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교육 매뉴얼 중에서 두 가지가 참으로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 속의 '동의'이고, 두 번째는 여자답게 남자답게 성역할 고정관념이 아닌 '나답게'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마음을 물어보다거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어봐 주지 않았고,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의' 타인의 생각을 묻고 대답을 듣고 행동하는 것은 곧 인성이라고 생각하며 동의를 구하는 것은 배려와 존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답게'라는 말이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보다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 비교하며 상처를 입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자, 남자라고 이분법적으로 말해왔고 인식해 왔던 편견으로 누군가는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나에게로 집중,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습이 바로 나답게! 이러한 말과 행동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교육 진행을 하면서 제 자신이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경험하고, 저와 함께 하는 청소년들에게 성교육 활동이 좋은 경험이 되고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가 스마일(김성순)

특수학급 성교육 활동가로 자원하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지금까지 성교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기모임들 안에서 특수학급 성교육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고 함께 나누며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생겼고, 부족한 부분은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더 깊이 공부하고, 교육 나눔을 통해 배워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수학급 성교육 활동을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발달 장애청소년들과 만나며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경험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가 봄이(김미범)

30년째 발달장애인 아들을 여전히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이고 싶었으나 남다른 아이와 살다 보니 남달라진 장애인 가족의 엄마가 되었네요. 지루할 정도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으나 반전과 역동성을 넘나드는 파노라마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나와 다른, 내 생각과 다른, 다양한 인생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고 이해가 깊어지고 감수성이 뽀뽀 샘솟게 되었고 나를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게 만드는 소중한 동반자가 된 아이 때문에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 관련된 일을 하는 길에 들어섰고 거기서 새롭게 만난 인연이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입니다. 센터는 내 아이에게 머문 시선을, 내 아이에게 머문 권리 신장에 대한 생각을

확대시키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강의로 성장시켜주었고 좀 더 확대된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장애인권 못지않게 아직은 기울어진 성평등의 지형을 제대로 인식하고, 가장 취약한 장애인성교육과 성적자기결정권, 성평등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자주 못 뵈는 등 원활한 진행의 어려움에도 애써서 연결의 끈을 이어주신 센터 활동가 쌤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며 함께 수료하고 강의 나가고 교육을 듣던 같은 기수의 동기 활동가 쌤들에게도 이제 자주 뵈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만남의 장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 몸도...마음도...가치도...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자원활동가 활동



〈독서감상문 공모전〉

첫 번째 도서 ‘젠더감수성 교실’



활동가 바람

나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던 익숙한 말들, 성별 이분법으로 아이들의 사용 하는 물건들을 준비하고 사용했던 나의 모습과 행동들, 아이들을 키우면서 허용 되었고 아들이니까~했던 나의 모습들로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현할 기회조차 빼앗은 건 아닐까? 란 생각이 들었다.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성역할 고정관념, 나는 아니라고 생각 하지만 어려서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고정관념들이 지금도 몸에 배어서 음식 준비는 너무나 당연한 나의 일, 어쩌다 한번 하면 고마워 하고, 집안일도 마찬가지다.

청소를 못했거나 빨래가 밀리면 미안해하는 나. 나도 모르게 외출할 때 화장 에서 자유롭지 못하고...그래도 인권교육, 성교육을 받으며, 젠더감수성을 점검하고, 낮은 젠더 감수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 안의 왜곡된 생각을 버리고 바로잡기 위해 더 깨어져야 할 거 같다.

현장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읽고 또 읽고 싶은 책 입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활동가 소리쳐

저는 '젠더감수성 교실' 책을 보고 난 뒤 교육을 진행한 그룹에서 유난히 성별 고정관념이 있는 청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핑크색은 여자 색이라며 센터에서 제공하는 핑크빛 볼펜도 거부하였답니다.

교육 후 안내자분들과의 피드백 시간과 이동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성별 고정관념을 깨뜨린다는 것은 어렵고도 시간의 두께가 필요한 것 같고, 나의 성 의식의 한계 안에서 누군가에게 알려주거나 교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책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도가 아주 적절한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내용을 쉽게 풀어서 청소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을 보고 알았는데 예전에는 분홍색이 용감함을 상징하고 그래서 남자들의 색이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책 P.25 이 내용도 잘 풀어서 다음 교육 자료에 반영해도 좋을 것 같아요.

활동가 스마일

비하표현, 혐오표현은 "무조건 쓰지 마!"라고 금지하는 건 효과가 별로 없다!

지식 전달이 아닌 인권이나 생활지도 시 당위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네요!

언행을 바꾼다는 것은 자신의 생활방식을 바꾸는 것이고 사고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스스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존중과 동의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현재 직장가 가정에서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딸들의 화장이나 행동을 보고 툭 내뱉는 나의 언어들...이미 굳어져 버린 내 안의 고정관념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당황스럽지만 이미 쏟아진 말들은 주워 담을 수 없기에~혹여라도 나의 말들로 인해 아이들이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배우지 않을까 사과하게 되고 스스로 반성하며 이 책을 읽고 아이들과 생각을 나누어 보기로 했습니다.



활동가 동구

1. 좋은 성평등 교육 지침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도 있었지만, 사실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더 많았습니다. 청소년 교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것은 내 평소 언어 습관과 태도가 현장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부지런히 실천해야겠습니다.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매뉴얼"이라는 부제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2. 아이들이 아닌 어른 독자를 교육하는 책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책이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자가 노린 고도의 전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평등 지식이나 성인지각수성이 부족한 부모, 교사, 어른들이 먼저 바뀔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3. 옥에 티

굳이 옥에 티를 찾자면, 각각의 이론이나 예시로 든 내용들의 출처가 조금만 더 친절하게 안내되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서감상문 공모전〉

두 번째 도서 ‘학교에 페미니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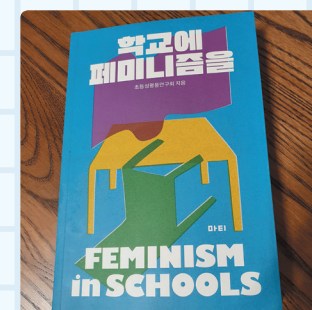


활동가 나나

첫 페이지를 넘기며 요즘같이 성평등한 세상에 왜? 나는 성평등과 인간존중을 양성평등으로 잘못 인지하고 살아왔다.

무심코 흘러들던 말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무의식중에 색이나 상징 등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구분하는 것들이 우리 일상에 많았다. 우선 나 자신부터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변화로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발전을 기대해 보며 나의 작은 활동 또한 변화로의 보탬이 되길 기대해 본다.



성교육 참여 청소년의 소감

성교육이 너무 재미
있다.

개방의 수업을 찾아라!

재미있었다

〈좋았던 점〉

좋아해라 라는
재미있었던
내가 뭐 좋아하냐
성교육을 할 것
꼭 좋았을 것

〈좋았던 점〉

성교육을 해서 재미
있었다.

〈좋았던 점〉

나는 저번에 몸하고
별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좋았다.

각기 노개를 많이 알려주셔서
파랏다.
선생님이 저한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던 점〉

리바다
장난감 영상

〈아쉬운 점〉

더 많으면 좋겠다

〈아쉬운 점〉

~~성교육이~~
~~재미있어서~~
성교육을 듣고 하고
싶다

추리했던 사람들이 틀리니
가 봐줬다.

나는 그동안 성교육을 하
면서 재미있던 일들을 얘기
하고 나서 이렇게 오늘까지만
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

〈아쉬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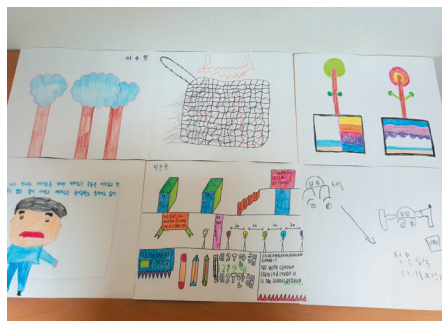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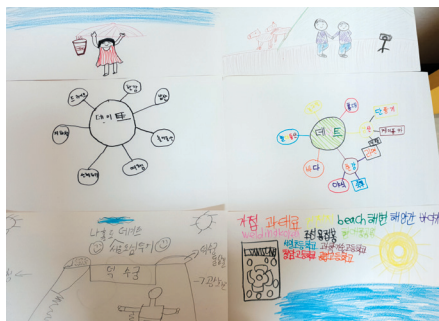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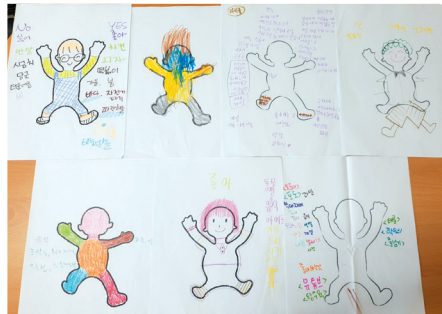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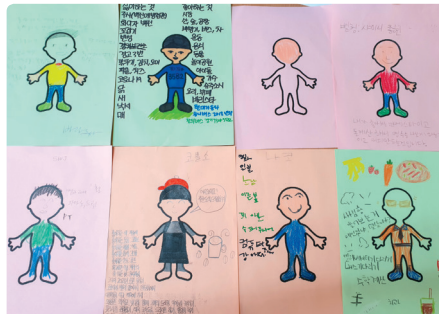
선생님께
가문의 재미있는
것을 읽은 후에
저기서 가서
공부하세요

〈아쉬운 점〉

4시간 밖에 짧아서 아쉽다.
코엑스를 많이 가서 아쉽다.
코로나 위험한 상에서 가게 되어서
아쉽다.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장애청소년성교육 활동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실무자 편집후기

지니

어려운 환경에서 함께해주신 활동가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활동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밍코

책 한 권이 나오기까지 우리 드림과 함께 걸어와 주신 모든 성교육 자원 활동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짹짹!!! 담당자 베키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성문화가 더 즐거워집니다! 안내자들이 다양한 청소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림으로 놀러오세요~

새봄

2021년에도 열심히 역량강화하시고, 장애청소년성교육을 진행해주신 성교육자원활동가 선생님들과 담당자 베키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활동집 발간 축하드립니다!

베키

성교육에 대한 관심들은 참 많지만 정작 오랫동안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2020년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진짜' 드림에서 활동할 장애청소년성교육 자원활동가를 모집하며 지금의 활동가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의 심층 삼층 사층 면담을 통과하고 양성과정 수료를 마치고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활동가로 함께 하고 계신 막강 울트라 드림 활동가분들~♥

눈치코치 없이 역량강화교육과 정기모임 때면 시간 짹짹 채워서 수업과 워크숍, 토론회로 정신 줄 쏙 빼놓고~ 특수학급성교육 기회가 매번 오는 게 아니니 지금 바로 도전해야 한다고 성교육 신청 독촉하고~ 잊을만하면 오픈채팅방으로 성문화프로그램 같이 참여 하자고 카톡카톡 울리기 바쁘고~ 2년간 이러한 저의 끈질기고 애정 어린 괴롭힘으로 고생 많으셨을 텐데도 포기하지 않고 곁에서 고생 끝에 오는 교육의 기쁨을 함께 맛보고 누리주신 활동가분들께 <2021 장애청소년성교육&성교육자원활동가 활동집> 발간을 맞이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연말이라 바빠실 텐데도 원고 독촉 속에 같이 점검해 주시고 의견 모아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드디어 활동집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2022년 지금껏 그랬듯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 있는 그곳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즐겁고 모두가 안전한 성문화가 정착되는 그날을 위해 오래도록 함께 걸어갈 것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신 성교육자원활동가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모두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와 함께 해요!